

역사문화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협정 활성화방안

신민지* · 신지훈**

*단국대학교 대학원 ·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I. 서론

‘역사문화경관(歷史文化景觀)’은 도시의 고유한 역사성 및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삶의 문화가 축적된 생활 속의 다양한 경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조성태, 2007). 특히 도시 경관의 미적 측면에서 시각적 다양성 제공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도시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상징적인 측면으로서 도시 내에서 정신적으로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역사문화경관 대한 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관 주도하 방식의 보전제도로 보전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장민영(2011)도 “상이한 관리주체와 행정부서 간 미약한 협력구조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는 과도한 건축물 위주의 보전정책은 물론 규제에 대한 이해나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디자인수법의 부재도 문제되어지고 있다. 또한 법적규제가 존재하지만 유지·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도 있다. 이에 따른 실례로 현재 난개발로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상업시설·숙박시설의 난립과 서울 경복궁 앞 고층의 주상복합빌딩 등 고층건물 및 주거시설 건설사태가 전국적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경관협정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경관을 형성하고 보전하도록 하는 적절한 경관관리 방법으로 관 주도하에서 행해졌던 경관계획을 경관사업을 통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뒷받침하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경관관리 방법이라 할 수 있다(김미선, 2010). 그러나 경관협정이 아직 초읽기로 내용 자체가 선언적 의미로 구성되어 있거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의 구성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문화경관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경관협정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자 경관협정내용의 일반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진행되었다.

역사문화경관 보전 관련 가이드라인 고찰 및 주민자치 및 참여에 의한 경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 지역 사례 등

을 고찰하여 도출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방법으로 경관협정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경관협정 내용을 도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연구내용은 관련 법규 및 이론 등을 고찰하고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협정 사례 및 유사한 경관관리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경관협정내용을 분류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최종경관협정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1) 문헌 및 사례조사

문헌 및 사례조사를 통해 협정문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문헌연구는 주로 선행되어진 역사문화경관 및 경관협정과 관련된 연구를 고찰하고 여러 사례와 관련하여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다. 경관협정 사례는 근래에 완료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관법에 근거한 실제 경관협정 사례 및 법적으로 실효성은 없지만 마을 만들기 등과 같은 경관협정과 유사한 주민참여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사례에서는 주로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역사문화경관에서의 경관협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항목으로 대분류, 중분류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목록화하여 제시하였다.

2) 중요도 분석

본 연구의 중요도 분석은 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설문은 연구 주제에 관련된 도시·건축·조경·디자인·문화재 등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직관을 객관화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전문가 40명 이상의 설문회수율로 신뢰도를

높였으며, 설문은 8월 중순 2주간 역사문화경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회수율이 낮아 2차 설문으로 9월에 진행된 역사문화경관 관련학회 행사 및 세미나 등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0월 중에 3차 설문을 진행하여 회수율을 높였다.

설문의 내용은 기존의 연구와 지침 등 사례 분석을 통해 분류한 내용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협정내용의 항목을 전문가집단이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중요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고,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이용하여 조사대상 전문가의 합의 수준을 파악한다.

조사된 평가 항목에 대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항목의 빈도 분석으로 중요도 및 필요성이 높은 항목을 분류하고 항목간의 일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 α 계수)을 실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협정내용의 분류

사례 조사를 토대로 협정내용의 분류를 진행하였다. 경관협정 및 경관협정과 유사한 사례를 마을만들기에 관한 내용과 상업가로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사례의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이 포함 될 수 있는 항목으로 대분류하였다 (표 1 참조).

분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복되는 항목과 가이드라인의 소분류 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한 결과, 마을만들기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 토지이용, 옥외광고물, 가로경관, 조명, 기타 사항으로 분류되었고, 상업가로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 토지이용, 옥외광고물,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 기타로 분류되었다. 두 내용이 공통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건축물, 토지이용, 가로경관, 조명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축제 및 주민

표 1. 사례내용의 대분류

구분	마을만들기에 관한 내용				상업가로에 관한 내용			
	(a)	(b)	(c)	(d)	(e)	(f)	(g)	(h)
건축물	●	●	●	●	●	●	●	●
외부공공공간	●		●	●		●		●
토지이용		●	●					
가로경관	●	●			●		●	
옥외광고물	●		●	●	●	●	●	●
조명		●		●		●		●
색채	●							
역사·문화						●		
기타·커뮤니티	●		●	●	●		●	●

- ① '미나토미라이(港未來)21' 중앙지구 마을만들기 기본협정
- ② 시가현 오우미하치만(滋賀縣 近江八幡)시 풍경만들기
- ③ 부산 청사포마을 경관협정(2009)
- ④ 서울 경관협정 시범사업(2009)
- ⑤ 덴포인도오리에도 마찌쯔꾸리(伝法院通り江戸まちづくり)
- ⑥ 전주 기린로 전자상가 경관협정(2009)
- ⑦ 수원 거북시장
- ⑧ 안산25시 광장주변 상업가로 경관협정(안)

활동과 역사문화경관의 내용 또한 중요성이 있는 항목이라 판단되어 각각의 분류별로 나누어 세부내용을 포함시켜 역사문화경관의 경관협정 시 협정내용을 분류하였다(표 2 참조).

2. 중요도 분석

선행되어진 협정내용 가이드라인의 분류를 토대로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경관협정 시 고려해야 할 경관협정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문가 설문을 3차에 걸쳐 진행한 결과, 46부를 회수하여 중요도 및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이다.

1)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표 2. 역사문화경관 경관협정내용 가이드라인 분류

구분	내용	
건축물	규모	길이가 긴 장방형의 건축물은 제한한다. 건축물은 소단위 분절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모를 제한한다. 기존 건축물의 높이에 맞추어 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형태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주변 역사문화경관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건축물의 외벽은 반사광이 있는 재료의 사용을 피하며,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되는 전통 재료 및 자연재료를 사용한다.
건축물의 외벽 녹화 및 저층부 옥상녹화 등 자연적인 요소로 친환경적이고 친근감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차양은 주변 역사문화경관을 모티브로 하여 통일된 형태 및 디자인으로 한다.		
건축설비	건축물에 포함 된 건축설비시설물은 은폐 및 집약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건축물 옥상설비시설물은 건축물과 일체화 및 옥상녹화로 조화롭게 계획한다.	
스카이라인	역사문화경관의 왜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속적인 흐름을 지닌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롭도록 고저차가 작은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표 2. 계속

외부공간	공공공간	주변 역사문화경관을 모티브로 휴게공간·공공공간 등을 계획한다.
		주변 역사문화경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계획한다.
		도로나 건축물로 위요된 역사문화경관의 경우 인지성, 접근성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공공공간을 계획한다.
		역사문화자원과 공원녹지를 연계하여 상징성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보행자 도로 등을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자투리 공간에는 녹지대를 형성하고 인접한 주민, 상인이 관리하도록 한다.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역사문화공간-보행로-건축물 간의 조화를 도모한다.
		주요경관조망지점을 설정하여 역사문화경관의 조망권을 확보한다.
시설물	역사문화경관이 주요 축이 되어 상징성을 갖도록 주변 토지이용계획, 도로계획, 공원녹지계획 등과 관련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공공공간에 설치된 상점 앞 공공벤치등을 설치해 상인이 관리한다.	
	주차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수목식재, 잔디블럭, 전통재료의 사용으로 투수면적을 확보한다. 자전거보관소·주차장 등의 설치는 녹화를 이용하여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옥외광고물	간판	통일된 간판형태로 크기를 제한한다.
		창문광고물을 제한한다.
		주변 역사문화경관과 역사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디자인을 사용한다.
		형태는 단순하며, 간결하고 명확한 표기를 사용한다.
		유지·관리에 주민관심을 기울인다.
		상업시설의 상호명을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한다.
		벽면광고물의 설치위치 및 색채 수, 서체를 제한한다.
	사인(sign)	돌출광고물, 입간판, 대형광고물, 현수막시설 등을 보행환경을 위해 지양한다.
		광고물이 주변 건축물의 지붕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퇴색·부식이 없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형태는 단순하며, 간결하고 명확한 표기를 사용한다.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크기 및 설치위치를 선정한다.
		유지·관리에 주민관심을 기울인다.
		설치위치 및 색채 수, 서체를 제한한다.
퇴색·부식이 없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가로환경	보행공간	보행환경에 저해되는 시설물 등의 요소는 제한한다.
		보행환경에 용이한 포장재료를 사용한다.
		역사문화경관을 모티브로한 디자인을 포장패턴 등에 이용한다.
		보행로와 연결한 상점의 경우, 가로미화 유지·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역사문화경관을 모티브로한 디자인을 가로시설물에 적용한다.
		주변역사문화경관과 연속된 포장 패턴을 적용한다.
	경계부	가로수의 수종은 지역성을 살린 수종으로 계획한다.
		과장된 패턴이나 자극적인 색채의 포장은 지양한다.
		경계부에는 도로·차도를 축소하는 등 보행친화적으로 개선한다.
		경계부에는 공공주차공간 등을 제한한다.
담장	경계부에 이질적인 설치물보다 건축물을 이격하거나 차폐, 방음림 등으로 소음을 차단한다.	
	경계부의 담장은 낮게 설정하여 인지성을 높인다. 위압감을 주는 담장·옹벽 등을 제한하여 역사문화공간으로의 접근성·친근감을 높인다. 경계부의 담장은 주변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로운 재료와 형태로 원형을 유지하거나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복원하도록 한다.	
야간경관	야간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조명을 주변 건축물 및 공공공간 등에 설치해 연속감을 부여한다.	
	점조명·네온사인 등의 점멸 및 광원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지양한다.	
	조명은 부드러운 간접조명 및 외부에 조명을 설치한다. 야간조명 운영시간을 계획한다.	
색채 및 재료	기조색채로 흰색, 베이지, 라이트그레이, 갈색, 검정색 등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로운 차분한 색채를 사용한다.	
	광택, 투명, 반사, 원색적 재료와 색채를 지양한다.	
	사괴석, 화강석, 장대석, 판석 포장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전통문양 등 장식적 상징조형물 등의 무분별한 남용을 지양한다.	
커뮤니티활동	주변 지역민 스스로가 역사문화에 대한 자부심 등을 갖고 미화에 주의를 기울인다.	
	정기적으로 지역민(주민·상인)모임을 결성하여 적극 참여한다.	

표 3.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	29	63.0
	여	17	37.0
연령	20대	5	10.9
	30대	10	21.7
	40대	18	39.1
	50대	12	26.1
	60대 이상	1	2.2
전공	도시	9	19.6
	건축	9	19.6
	조경	17	37.0
	디자인	3	6.5
	문화재	5	10.9
	기타	3	6.5
직장	대학교수	10	21.7
	국·공립연구소	5	10.9
	관련기업체	12	26.1
	공무원	12	26.1
	대학원재학	4	8.7
	기타	3	6.5
학력	학사졸업이하	16	34.8
	석사졸업	9	19.6
	박사과정	9	19.6
	박사졸업	12	26.1
경력	5년 미만	8	17.4
	5~10년	10	21.7
	10~20년	14	30.4
	20년 이상	14	30.4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63.0%와 37.0%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39.1%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의 분포는 조경이 37.0%로 가장 많은 인원이 응답하였고, 직장으로는 관련기업체와 공무원이 26.1%이며, 학사졸업이하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력별 분포는 10~20년, 20년 이상이 각각 30.4%로 높게 나타났다(표 3 참조).

2) 역사문화경관 보전을 위해 고려 할 사항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기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에 관한사항,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가로환경에 관한 사항, 야간경관에 관한사항, 색채 및 재료에 관한사항, 커뮤니티활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중요성여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평균 값 83.5%로 나타났으며,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96.6%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사항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항으로 다른 내용은 응답되지 않았다(표 4 참조).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사항으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내용과 같다. 건축물의 관한 사항과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표 4. 역사문화경관 보전을 위해 고려 할 사항의 중요도

구분	중요도(%)
건축물에 관한 사항	96.6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93.4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78.2
가로환경에 관한 사항	84.0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76.0
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	83.0
커뮤니티활동에 관한 사항	73.4
기타	0.0

역사문화경관 보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평균 83.5%

표 5. 역사문화경관 보전을 위해 고려 할 사항의 신뢰도 분석

구분	M	S.D.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건축물에 관한 사항	4.82	0.39	0.7385	0.7452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4.69	0.60	0.7272	
가로환경에 관한 사항	4.22	0.70	0.7301	

가로환경에 관한사항의 평균(Mean)과 표준편차(Std. Dev)값을 나타내며, Cronbach α 값이 .7452로 0.6 이상이므로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Alpha if Item Deleted 값은 건축물에 관한 사항의 항목을 제거했을 때, Cronbach α 값이 .7385가 된다는 의미로 역사문화경관 보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의 Cronbach α 값 .7452보다 건축물의 관한 사항의 항목을 제거했을 때 값이 하락하게 되므로 제거를 해서는 안 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과 가로환경에 관한 사항의 Cronbach α 값이 각각 .7272, .7301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항목의 Cronbach α 값 .7452보다 낮아지게 되므로 제거해서는 안 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3) 분석의 종합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각 항목의 중요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를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나누었다. 중요도가 높은 항목인 주민들이 반드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강제적 사항과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으로 구성된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경관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키거나 유도·권장해야 하는 사항으로 분류하여 결과가 나타났다.

IV. 결론

본 연구는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 및 정체성을 살리는 역사문화경관의 보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역사경관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이 추진할 수 있는 경관형성 방안을 협정내용에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6. 분석의 종합1

구분		내용
건축물	규모	기존 건축물의 높이에 맞추어 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형태	건축물의 외벽 녹화 및 저층부 옥상녹화 등 자연적인 요소로 친환경적이고 친근감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차양은 주변 역사문화경관을 모티브로 하여 통일된 형태 및 디자인으로 한다.
스카이라인	역사문화경관의 왜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속적인 흐름을 지닌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외부공간	공공공간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롭도록 고저차가 작은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주변 역사문화경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계획한다.
		도로나 건축물로 위요된 역사문화경관의 경우 인지성, 접근성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공공공간을 계획한다.
시설물	역사문화자원과 공원녹지를 연계하여 상징성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옥외광고물	간판	자전거보관소·주차장 등의 설치는 녹화를 이용하여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주변 역사문화경관과 역사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디자인을 사용한다.
		형태는 단순하며, 간결하고 명확한 표기를 사용한다.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크기 및 설치위치를 선정한다.
		돌출광고물, 입간판, 대형광고물, 현수막시설 등을 보행환경을 위해 지양한다.
사인	광고물이 주변 건축물의 지붕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크기 및 설치위치를 선정한다.	
가로환경	보행공간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크기 및 설치위치를 선정한다.
		보행환경에 저해되는 시설물 등의 요소는 제한한다.
		보행로와 연결한 상점의 경우, 가로미화 유지·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담장	가로수의 수종은 지역성을 살린 수종으로 계획한다.
과장된 패턴이나 자극적인 색채의 포장은 지양한다.		
야간경관	경계부의 담장은 낮게 설정하여 인지성을 높인다.	
	위압감을 주는 담장·옹벽 등을 제한하여 역사문화공간으로의 접근성·친근감을 높인다.	
색채 및 재료	경계부의 담장은 주변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로운 재료와 형태로 원형을 유지하거나 원형을 가까운 형태로 복원하도록 한다.	
	점조명·내온사인 등의 점멸 및 광원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지양한다.	
		조명은 부드러운 간접조명 및 외부에 조명을 설치한다.
		광택, 투명, 반사, 원색적 재료와 색채를 지양한다.

표 7. 분석의 종합2

구분		내용
건축물	규모	길이가 긴 장방형의 건축물은 제한한다.
	형태	건축물은 소단위 분절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모를 제한한다.
		건축물의 외벽 녹화 및 저층부 옥상녹화 등 자연적인 요소로 친환경적이고 친근감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건축설비	차양은 주변 역사문화경관을 모티브로 하여 통일된 형태 및 디자인으로 한다.	
외부공간	공공공간	건축물에 포함 된 건축설비시설물을 은폐 및 집약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건축물 옥상설비시설물은 건축물과 일체화 및 옥상녹화로 조화롭게 계획한다.
		주변 역사문화경관을 모티브로 휴게공간·공공공간 등을 계획한다.
시설물	보행자 도로 등을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옥외광고물	간판	자투리 공간에는 녹지대를 형성하고 인접한 주민, 상인이 관리하도록 한다.
		공공공간에 설치된 상점 앞 공공벤치등을 설치해 상인이 관리한다.
		통일된 간판형태로 크기를 제한한다.
		창문광고물을 제한한다.
		유지·관리에 주민관심을 기울인다.
사인	상업시설의 상호명을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한다.	
	벽면광고물의 설치위치 및 색채 수, 서체를 제한한다.	
	퇴색·부식이 없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가로환경	보행공간	유지·관리에 주민관심을 기울인다.
		설치위치 및 색채 수, 서체를 제한한다.
		퇴색·부식이 없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보행환경에 용이한 포장재료를 사용한다.
경계부	역사문화경관을 모티브로한 디자인을 포장패턴 등에 이용한다.	
	역사문화경관을 모티브로한 디자인을 가로시설물에 적용한다.	
	주변역사문화경관과 연속된 포장 패턴을 적용한다.	
야간경관	경계부에는 도로·차도를 축소하는 등 보행친화적으로 개선한다.	
	경계부에는 공공주차공간 등을 제한한다.	
색채 및 재료	경계부에 이질적인 설치물보다 건축물을 이격하거나 차폐, 방음림 등으로 소음을 차단한다.	
	야간조명 운영시간을 계획한다.	
		기조색채로 흰색, 베이지, 라이트그레이, 갈색, 검정색 등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로운 차분한 색채를 사용한다.
		사피석, 화강석, 장대석, 판석 포장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문헌 및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종합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 및 경관형성방안과 관련된 내용인지를 판단하여 빈도가 높은 항목으로 최종 협정내용으로 도출하고, 적용 가능성 및 중요도 분류를 위하여 전문가 설문문을 통하여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강제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항으로 제시하였고,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에 대해서는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경관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켜야할 유도 혹은 권장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역사문화경관 보전을 위해 경관협정 시 협정내용으로 포함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역사문화경관 주변의 조성에 있어 건축물 외형 및 외부 공간 등이 역사문화경관을 모티브로 하여 접근성과 상징성이 나타나도록 조성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가로환경에서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존의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을 제안한다.

유도 혹은 권장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고, 건축 설비시설의 은폐 및 집약화로 노출을 막는 세부 사항을 권장 할 수 있다. 또한 외부공간의 조성은 강제적 사항이었으나 유지관리는 유도하도록 하고, 자연친화적인 재료의 사용 및 야간경관에 대한 네온사인 관리 및 야간 조명시간 운영에 대해서도 제안 할 수 있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전통성을 가진 역사문화경관의 경관관리를 위해 지역민 스스로 추진하여 유지관리에 참여하고, 경관향상 및 지역민의 의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특정한 대상지를 설정하지 않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주로 전통적 성격을 나타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좀 더 세밀한 디자

인과 관련된 내용의 도출을 위해 대상지의 특성에 따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본 연구와 비교 및 내용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역사문화경관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경관에서의 경관협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협정내용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용문헌

1. 국토해양부(2008) 경관협정수립방향 및 주민참여유도방안연구.
2. 김미선(2010) 경관협정 시범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용근(2009)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및 평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지현(2010) 경관협정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거버넌스 사례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이경록(2008)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경관위원회의 역할과 주민참여활성화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장동수(2009) 전통문화환경에 새겨진 의미와 가치. 도서출판 조경.
7. 장민영(2011) 문화재 보전과 도시계획 연계를 통한 역사문화환경 관리 방안 연구: 일본 역사마찌즈쿠리계획 인정도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전선미(2008) 경관협정 구성 요소 및 중요도 분석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성균관대학교(2009) 서울특별시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보고서.
10. 신병훈, 이창호, 이영환(2009) 일본의 경관협정에 의한 경관관리 수법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3(36): 33-49.
11. 안산시(2008)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12. 이병대, 동재욱(2009) 일본의 경관협정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인테리어 디지털 디자인학회 논문집 9(1): 71-81.
13. 이정형(2005) 일본에서의 경관시책과 경관법제정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법제정에 따른 도시계획 법체계의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 pp. 17-29.
14. 이주형, 장석하(2006)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2(3): 107-115.
15. 조성태, 강동진, 오민근(2006) 일본 가나자와의 역사문화경관 관리 특성. 한국도시설계학회지 7(3): 33-52.
16. 충북개발연구원(2009) 경관협정의 구성요소 및 효율적 운영방안.